

은우에게

안녕은우야

여기는 정읍시 내장산이야. 여기는 이제 단풍이 빨개지고  
있어. 여기 이제 산이 빨간색으로 변할 거야. 이제 사람들의  
단풍을 보러 산을 많이 늘려 올거야. 이제 바람도  
불니. 긴팔에 산에오는 사람이 많지만 수영장에가고  
반팔을 입는 사람은 없어지지. 이제이 내장산이  
빨개지고 있어. 이제 곧 모든 산이 빨개질거야.

은우가

2017.10.11 (토)

나에게

안녕? 지금 여기는 단풍나무도 많고 다른 나무들도

많아. 지금 깎아다니는 데 힘들고 바빠 어워. 하지만

경기도 좋고 아릅답아. 지금 산도 많고 볼 것이

많지만 힘들어 하지만 볼 게 많아서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딱히 쓸 말이 없지만 노력하고 있어. 힘들지만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여기서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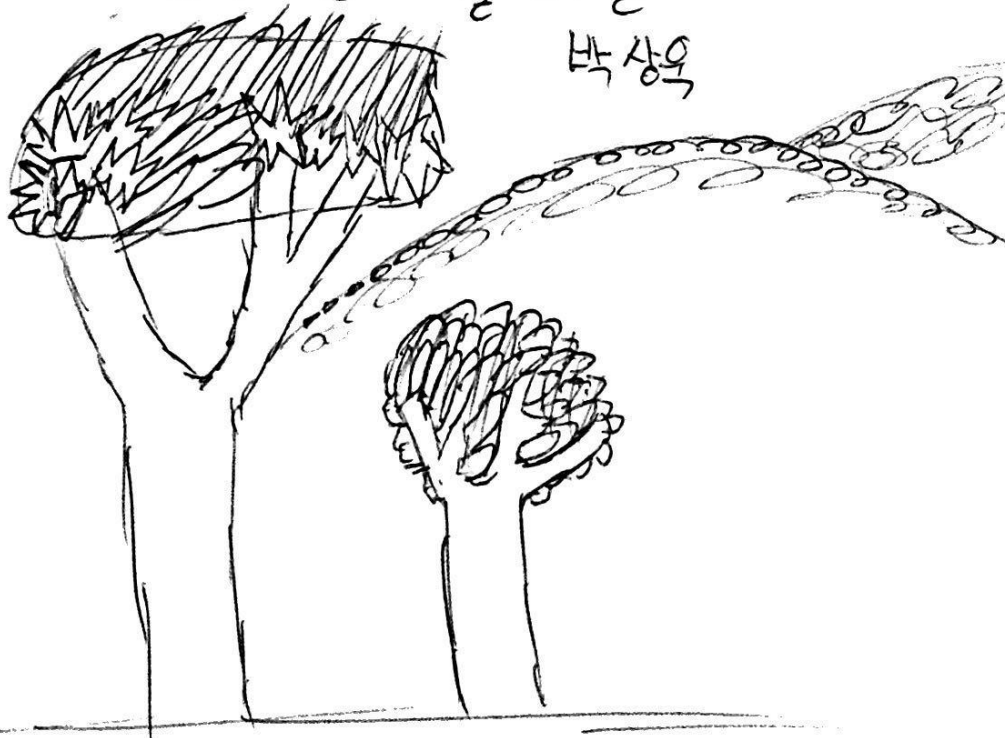
것도 배우고 경험 해니까 좋은 것 같아

구경할 게 있어서 구경하고 싶다. 그런

안녕

2017년 10월 2일

박상욱



「지영이에게」

안녕? 지영아 나는 현재에 지영이야  
난 지금 정읍 내장산에 있어.

풍경이 너무 좋아 사진 찍기 좋아!  
너도 한번 여기 오면 좋은 추억 만들거야.  
정말 가을인가봐.

단풍이 정말 많이 볼드어서 너무 예뻐  
학교생활 하기 힘들지?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꿈을 이룬다면 지금보다 몇배 더 행  
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말로만 나도 열심히 할테니 너도 좀더

노력해 ~ 항상 건강 관리 잘 하고

행복하렴 ~

From 지영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나에게

안녕 상준아 나는 상준이야

나는 지금 내자상실에서 미리미리 나에게

프린터를 쓰는 형제야 나야

나는 <sup>공부</sup>조용이야 아직은 <sup>중</sup>중학생이 아니어서

공부를 <sup>비밀</sup>안래 그래서 인생이 <sup>즐거워</sup>

중학생이 <sup>도</sup>되기 전에 많이 <sup>놀아야</sup>겠어,

그럼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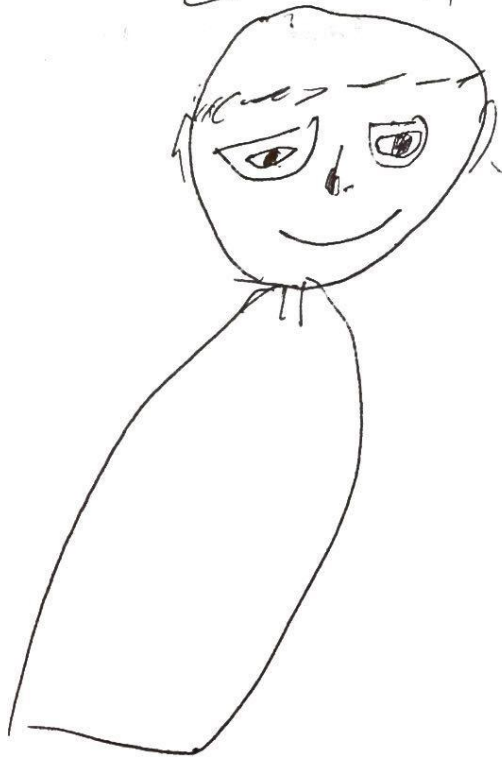
김상준이

호신에게

안녕 난 송호신야. 나는 포켓몬 너한테  
보내고 있어. 그들에서 내가 너에게 칭찬해

주게 너는 개그를 잘해 너는 웃겨

너는 고사 이제 할 일 잘해



가현이에게

안녕?

나 2017년 10월 21일에 내가 너한테 쓰는 거야

나는 지금 정읍 내장산에 와 있어

나는 여기서 느끼게 되어서 가을이구나 하고 느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벌써 단풍이 많이 떨어

너도 다음에 이곳에 한번 와 보.

꼭 오는 거야. (꼭 와 보.)

생태 공원이야. 그런가 진저자로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한마디로 자연이 그대로 있어

무안과는 다르게 생긴 정읍이야

그럼 다음에 한번 볼까

바고, 바이

2017년 10월 21일 (토)

김가현이



2011년 10월 21일 (토요일)

나에게

안녕! 오늘 나는 자양에서 그 달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가는 역사공정 여행에서 점심먹고 내과산에 들러 이리저리  
나에게 피곤기를 쓰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  
이렇게 나에게 피곤기를 쓰려니 도둑의 생각도 같 아나고

오늘 오를 자리는 피곤기를 쓰고 있는데 여객선 속 열차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고 내가 지켜야 할  
다리를 숙게 일단 물어보고 싶은 점은 지금 너

행복해? 인생이 뭐 별거 없고 행복해하려고 사는데  
그게 안되거든 많은 이유로 거니야 지금  
나는 행복한데 너는 불행하면 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많은 행복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배가  
질문은 성격은 잘 나와? 내가 지금 공부를 소홀히 하는것 때문에 그래? 너도  
공부를 더 할까봐 나도 이제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해서 좀 이뤄!!! 그리고

꿈라나까 말인데 너 꿈정해봤어? 나는 여객선이 없잖아! 그러니 그때쯤 되면 좀 꿈꾸어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내가 보초속에 있을 때까지 할려서 13년 평생  
근속이잖아 너가 지금 며칠은 안되는데 연애는 생인 되서 해  
그러기 전까지는 공부 할것도 많은데 연애에 돈도 많이 쓰고 관리하기도 귀찮고  
생인되서 연애해 그런데 그래도 공부 잘 할라지신 앞으멍 해 첫 번째로  
말 할 것 처럼. 행복해야 되니까 안겠지? 이제 이정도면  
특별히 하고 싶은 많은 아 쓰러갈 것 같아 더 생각하면 있을 것

같지만 내 소중한 시간 30분을 뺏아앗아 가는 죄  
이기 까지도 하고 나는 내과산 단풍 구경하러 갈게

안!  
영

너를 좋아하는 상병이가

진호에게

안녕? 진호야.

나는 지금 내장산에 와 있어.

여기는 호수도 보이고 대나무들이 모여 있고 단풍나무  
가 비탈길게 물들어 가고 있어. 또, 나무와 산이  
둘러 싸고 있는 등,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보여.  
너도 여기에 오면 좋겠어. 언젠가 이곳은 더  
아름다워 질 것 같아. 그럼 그때 같이 만나서  
놀자. 그럼 안녕.

2017년 10/21 (토)

진호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오찬아 난 너야 \* 넌 지금 친구랑 자꾸  
사사로운 문제로 부딪힐 거야 그 때는 순순히  
잔뿔을 인정하기 바래 자꾸 인정을 안하니까  
자꾸 자꾸 혼이 나자나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꾸중을 하더라고 죄책감  
같지마!! 그냥 잔뿔을 인정하면 돼고  
고치면 돼!! 힘내

오찬이에게  
오찬이가

2017, 10.24

나에게 쓰는 편지  
정민이에게

정민아 안녕? 나는 정민이야 ▶ 너는 잘 하는게 뭐야  
내가 잘 하는건 게임이니까 너도 잘 하는건 게임이겠지? 그리고  
잘아 하는건 노는것과 게임이지 나도 노는것과 게임을  
좋아해 다른것도 좋아하면 편지로 보내 ~~안녕~~ ~~안녕~~ 그럼 안녕!

정민이가

내가 내끼기.

— 내자신에게 —

안녕. 난, 바바. 내가 짜증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공부하기 싫을 때는 조금 쉬어도  
돼. 화도 참은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지 않고, 표현해. 좋은방식으로. 짜증내면은  
음식을 듣거나, 잠을 자서 그 짜증남을  
조금이라도 풀어봐, 그럼 너의 화가  
없어질거야.

안녕. 이제는 잘 살아.

2017. 10. 24. 화.

— 내자신이 —

2017. 10/21

지금 현재 나에게

안녕 나 자신아? 나는 과거의 나야. 내가 이렇게 생애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네..ㅎ 오호 하루는 참 즐거웠어. 왜냐하면 6번째로 장에서 희망공경여행을 갔거든. 정읍에서 떡을 만드시는 김용철 대표님도 보고 권문도 댕고 오늘은 유난히 더 집중이 잘 되어야. 멘토님을 뵈워 점심도 먹어 갔어. '서가래'에서.. 거기에서 불고기 백반을 먹었는데 그전에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밥을 좀 많이 남겼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 밥이 좀 아까웠어. 그래서 다음에는 좀 적당히 먹어야 겠다고 생각했지.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고창, 벌교(외생)과 다르게 인터넷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 자신한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했어. 아 맞다! 밥 먹고 난뒤에 한 번 씌이 있었는데 짹박했네! 말렸고 난 다음에 감자기 숲으로 가더라.. 거기에 강아지들이 엄청 많았는데 정말 귀여웠어. 숲을 올라가 보니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도자기? 가 땅에 꽃처럼 꽃처럼 있었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위에는 수백가지의 종과 도자기, 도깨비가 걸려있었지. 너무 멋있었어. 설명해주시는 분이 나랑이 세게 불면 종소리 한개 한개의 소리가 다 달라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그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나무를 살짝 살짝 흔들었어니 물론 사람이 흔들것이지만 그래도 매우 소리가 아름다웠어. 다음에 한번 재방을 할때 한번어 그 곳을 가보고 싶더라. 지금도 그 종소리를 잊지 못해. 근데 여 놀라운건 그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한개 한개 만든거였어! 그래서 그런지 모양도 소리도 다 알렸어. 외가져 다 똑같은것보다 색깔, 모양이 다르게 더 재미있어. 아아 그럴 만드신 분도 나와 같은 생각 아닐까? 물론 그런 내 생각이지만 어쨌든 내가 갔던 희망공경여행은 여기서 끝이야. 다음에도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하고 싶어. 생각보다 재미있네 ㅎ. 물론! 말이 아귀기 했지만..

그럼 안녕!

2017. 10.21

- 나 자신 -

date 2017.10.24

page

너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달게해 (포럼)

야 영한아, ~~좋은 약속을 하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가 할친에게 X)

학교에서 너의 여자애를 한기 까탈하게 하지마.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생각해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마, 너 자신을 믿어

22로 너무 힘들게 생활하지마

이제 곧 중학생이야. 그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향해 달려가자

22로 한바탕이 더 인정이 감사해, 22로 이 사춘기 시기를 잘

넘어가기 해리시라고 기도해, 또 기도하고 기도해?

22로 항상 화이팅!!!!

지혜에게 쓰는 편지

Date

No

To: 지혜

안녕? 나는 지혜야.

너의 기분은 <sup>지금</sup> 어때니? 나는 지금 리훈이

~~한~~ ~~주~~ ~~아~~.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야. 어쨌든 ~~태어나줘서 정말~~

어기는 내장산이야.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 아무든 태어나줘서 ~~고마워~~

왜냐하면 너는 소중한기 때문이야.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는것도

새롭네. 아아너는 지금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너는 비 삼이 어때

니? 나는 내 삼에 만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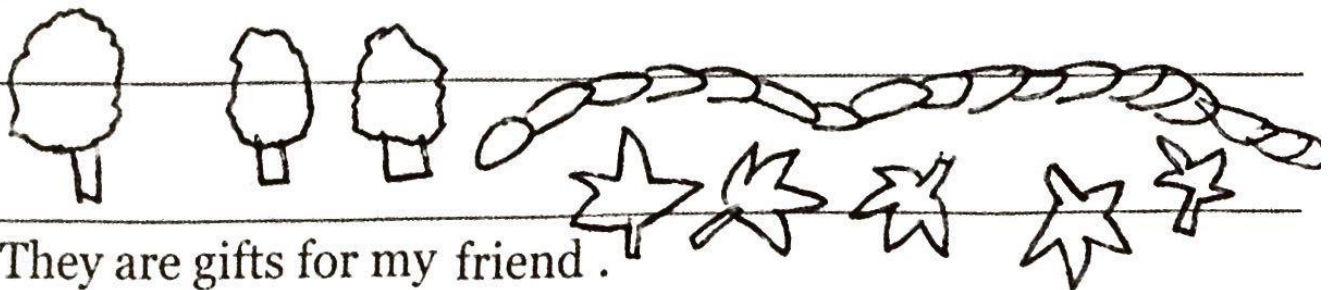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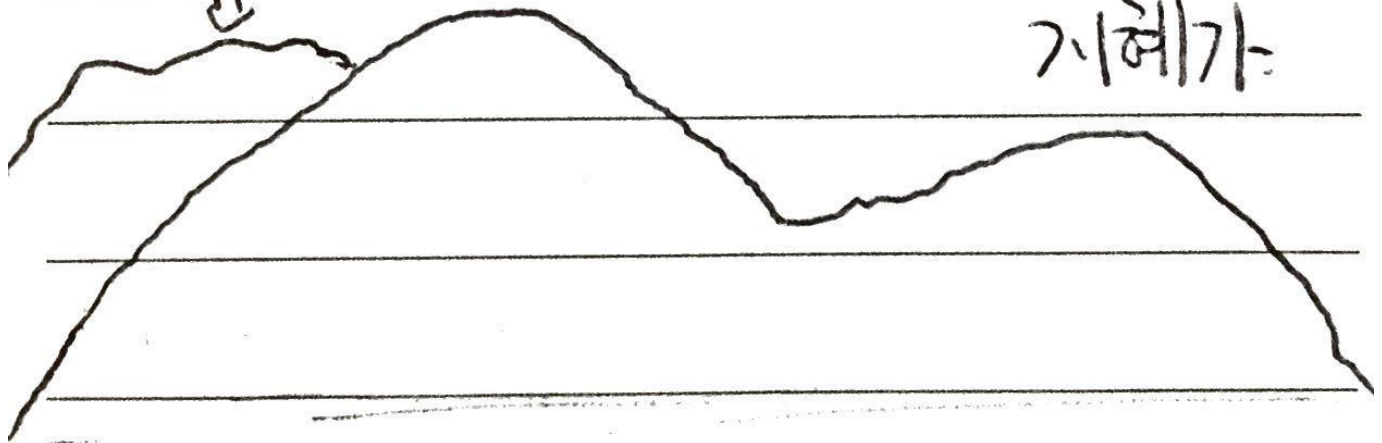
있어. 여기 정말 좋다. 노래들으면서

내 기분을 울리고 있어. 너 기분이  
 어때나? 난 아주 좋아. 짱 다니는  
 것도 아주재밌고, 학교가는 것  
 도 재밌어. 너는 어때? 정말  
 궁금하다. 아무튼, 안녕~ 나중엔  
 보자 나나.

2017. 10. 29(?)

내장산  
↓

리혜혜게  
기혜혜가



They are gifts for my friend .



nemo

# 진희에게 쓰는 편지

안녕 진희야, 나는 지금 잠 짐 내장산에 있어.  
잠 짐 내장산에서는 잠 단풍도 예쁘게  
떨어져 너도 단풍꽃처럼 예뻐  
지금 인생노잼시기이겠지만  
아무도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  
사랑해♡



지금의 나에게

안녕하세요

나는 지금 중립의 내장산에 와있어.

이 곳은 자연 생태지라. 이곳에 왜까

무안귀는 다르게 끼기 가깝고 상쾌해

이 곳 내장산은 정만 평이

멋진 환상적 이야. 나무도 맑고

깨끗이, 광채도 많아. 너도 지금 프롤케싱하고

있잖아.

그럼 안녕

2017. 10. 21. 토요일

내에게 /

안절부절이겠어 내 사랑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월 24일 화요일 김하연  
 또다름서거

# 희영이에게

안녕 희영아 나는 희영이야 너는 맨날 다이어트할 때면서  
손에 먹거기가 항상 있는 거 같아 그래도 언제가는

살을 빼볼 수 있게 되지? 딸큰 예뻐서~

그래서 너 좋아하는 사람은 나타나서 예쁘게

떠나서 언제까지 졸노래 살래 TT

그리고 화중내지마 너는 항상 화내고 나중엔 후회  
하잖아 화 잡고 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많은 데 그지?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자 나중엔 후회하지 말고

평생 같이 있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돈 낭비 금지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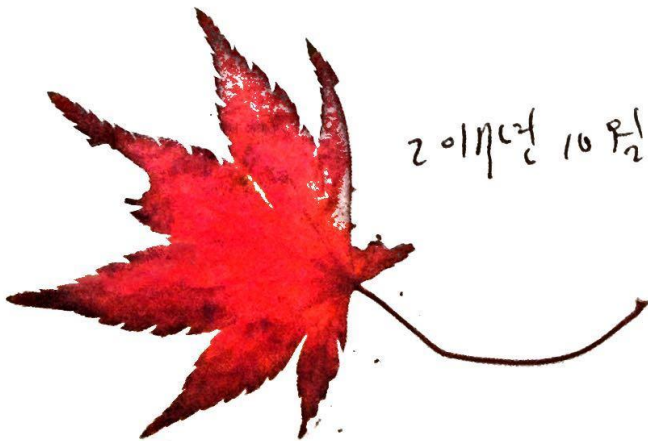
돈이 새끼냐? 평생 써 쓰지 말자 근데 너는 항상 다리는

늘려놓고 포기는 잘한다? 포기 조망하지 마 TT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남자랑

부내 보게 기 맨날 너소 킨 다이어트 이번엔 신세공

내화 그림 안녕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희영이가

# 나에게 쓰는 편지

안녕 보경아

나는 가끔 짐을 내강산에 와있어.

여기는 정말 좋아 단풍도 예쁘고

다음에 또 오고싶어할까?

너도 다음에 와바~

만약 나중에 너가 내편리를 잊으면

정말 신기할것 같아용

다음에 부모님이랑 같이 와바

그리고 ~~꽃~~ 솔티애플의 뜻도 알아서

정말 좋은것 같아.

솔티애플의 뜻은 솔티마을은 4강하는 떡(?)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안녕~

2019.10.21

-보경이가 17-

지홍이에게

안녕, 지홍아.

나는 지금 내 장산에 와있어. 지금 정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는 호수도 보이고 맑리는 안동리만  
대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단풍나무  
잎들이 붉은 색으로 물들고 있어. 주변에는 모두  
나무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여러 가족들이  
공원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네록 가족끼리 본것은 아니지만 나도 2박3일  
즐거워 있어. 노닐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잊고

포근 쉬면 좋겠어.

그럼 안녕.



2017년 10월 21일 (토)

지홍이가.



TO. 소중한 예은이에게

예은아 안녕👋

나는 너(?)야!  어제는 너가 태어난지  
5300일 되는 날이었어!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날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 안좋은일, 웃긴 일이 참 많았지

특히 최근에는 좋은일이 많아서 기분이 좋지만

조금 불안해.  너무 좋은일만 있어서 곧 안좋은

일이 일어날것만 같거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려해.  스픈일이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일이 올것이고 좋은일이 오면 좋지 않은 일이

오는건 당연하는 거나만 믿고있고

긴장을 해야겠지.

힘들어도 사랑하는 예은아 힘내고 사랑해♡

20171024화-예은이가

나에게 쓰는 편지

안녕 소희야? 난 소희야 난 지금 집에서  
멘토멘토를 대타고면서 정말 많은  
배우러가~~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지금 여기에 단풍이... 그게

유명해서 보고... 진짜 이쁘다

다음에 가족이랑 함께도 놀러다

아직~ ~~안녕~~ ~ 77

2017년 10월 21일 (금)  
소희가

# 나에게 쓰는 편지

## ① 나에게 쓰는 편지

안녕, 다현아? 오늘 장에서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이유로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이런걸 쓰는데 많이 어색하지만 계속 써볼게.

매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항상 밥도 잘안

먹고 좀더 빨리 일어나도 될 거같아. 저번

에도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나한

테 쓴다고 생각하니까 무슨말을 해야 할지

도 모르겠고 손도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

더 공부도 열심히하고 장도 열심히하고!!  
쉬

2017. 10. 24 (화)

양다현